

목양시평

서현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는 은혜를 누리자!



나는 비평과 논단(批評과 論斷)이란 소재지를 보고는 어디동절해졌다.

아찌 이 엄청난 사건들이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자를 거느린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말인가?

진실인가? 거짓일까?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미치는 파장은 어떨까? 이 지경에 이르러까지 비탄어제 오늘의 일 만은 아닐 터인데,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누군가에 의하여 이런 죄악이 싹트고 조직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선을 가짐하여 영혼을 속이고 탐욕에 의한 노략질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 폐단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

고집이 센 두 노인이 만나 우연히 인체 성장에 관해 논쟁을 하게 되었다.

한 노인은, 사람은 발에서 지란다고 주장했다. '키가 지랄수목 코트가 짧아져서 다리가 나오고 바지 길이가 짧아지는 반면 목이나 어깨 쪽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이니 발끝이 지라는 것이 맞지요."

한 노인은, 사람은 머리 쪽에서부터 지란다고 주장했다.

"나는 얼마 전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았는데, 군인들의 발바닥이 모두 똑같이 지면에 닿아 있는 반면, 머리 높이는 일정하지 않아 큰 사람, 작은 사람 제각각이었던 것만 보더라도 머리 쪽부터 지라는 것이 맞지요."(출처 = 한경 Business 2010. 12)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어느 쪽의 주장에 동의할지 할까? 아니면...?

우리는 똑같은 사항을 두고도 주장이 나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리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분명 동일한 내용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동의하면서도 그 의미 전달은 전혀 다른 경우를 종종 대하게 될 때는 "아전인수(俄田引水)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떨쳐 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내가 전하는 내용이 다른 이가 보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우선시 하거나, 자기가 보고 들은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 우선시 하는 경우는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마지막 날에 영동하고도 암울한 소식을 접하고 번민하기도 하였으나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종속되는 은혜를 누리야 한다고 기도한다.

"6)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그러므로 저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되 말라 (8)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나리" (엡 5:6-9)

사설

복음의 진리만큼은 혼합시킬 수 없다

2013년에 제10회 WCC총회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향간에는 양치풍을 펼쳐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기왕이면 협의하여 정치적 특이 많은 행사인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보자는 식의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강남의 J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 행사인데 돌지 않으려면 방해하지나 말라고 설교했다고 한다.

일부 교단에서는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 한기총 등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연합기관을 장악하여 잘못된 부분의 근원을 치유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먼저 고려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것은 양보해도 근본교리, 바른 복음, 진리만큼은 혼합시킬 수 없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WCC에서 말하는 종교간의 대화는 종교 다원주의를 근거로 하여 복음전파 등의 선교를 하지 말고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전도는 개종이 아니라 각자 자기 종교를 잘 믿게 하는 것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1968년 7월 스웨덴 울살라에서 개최된 제4차 총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 하에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인정된 적그리스도적이며, 반성경적인 총회였다.

W.C.C. 산하기구인 K.N.C.C. 계열의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북한의 무력침범과 공산통일 노선에 대하여는 함구하면서도 인권과 정의가 무시되는 독재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행동에는 목숨 바쳐 반대활동을 펴고 있다. 반미 운동에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예장합동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WCC는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WCC 신학과 오는 2013년 부산총회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장고신 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WCC는 종교 개혁의 근본 원리인 '오직 성경'을 포기했다. 신학적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한다"며 WCC 제10차 총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WCC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아름다운 동행' - 자선냄비 펄펄 끓어

지난해 12월 1일 시종식을 시작으로 82년째 이어온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전국 76개 지역 300여 개의 모금함을 운영하며 거리모금, 기업모금, 찾아가는 자선냄비, 인터넷 및 전화모금 등을 통해 사랑의 종소리를 울린 결과 마감일인 12월 31일 목표액 42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동안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사랑의 온기가 확산되어 해마다 목표액을 초과달성해 오던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는 일부 모금단체의 비리, 현안함폭침, 연평도도발 구제역학산, 강추위 등으로 위축이 예상됐지만 사랑 나눔의 온도는 식지 않았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현금기부는 조금 줄어든 반면 물품기부가 늘어나 오히려 예상모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선냄비 모금행사는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며 특별히 연예인들이 재능기부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온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구세군 자선냄비 '아름다운 동행'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선냄비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 것을 비롯하여 김용식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종교계 인사들도 종교를 초월하여 나눔 확대에 동참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12월 31일 자정까지 입금된 모금액을 결산하여 2011년 1월 6일 최종모금액과 발표, 행정안전부에 모금액을 보고하고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 국민의 정성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거짓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공익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며, 전문가도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라서 애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확대 해석·적용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새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40년 이상을 묵혀두고 있다가, 지난 해 1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적용하였다.

그 밖에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유언비어와 '여대생을 경찰이 목 졸라 살해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천안함 폭침 때와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긴급 대피령'과 '예비군 동원령이 내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기소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저촉된 사건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만도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중시는 당연하다'는 반응과 '거짓을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터넷, 트위터 등에서 무제한으로 유포되는 유언비어를 허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도, 국가 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이 도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운운'하는 사태 때에도 인터넷에서의 유언비어로 인하여 우리 사회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는지 모른다. 그로 인하여 무정부에 가까운 분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또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도, 거짓된 말들이 국가의 위기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혼란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한재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는 결정을 하면서도, 헌법 37조 2항에 있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다.

전기통신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통신은 전화와 전보 정도였다. 이제는 전화나 전보보다 다양하고,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 통신 수단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걸 맞는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젊은 층의 인터넷 활용은 100%에 가깝다. 그런 인터넷 상에서의 '거짓'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기왕 헌재에서 기존의 법이 예매모호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이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의도성을 띠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법률 정비는 필요하다.

공익을 해치는 '거짓'은 무한정의 사회적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불신 사회와 때로는 국가를 위기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양신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총회신문
 THE ASSEMBLIES OF GOD, KOREA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paran.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식재료

울금 (강황)

울금의 주성분 커큐민 항암, 항산화, 당뇨예방 등에 효과 탁월

비옥한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한 나주 평야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생산자가 직접 주문받고 판매 및 배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교회(나주공산목양교회)에서 자급자족할 요량으로 시작한 울금 농사였는데, 전남권에 사역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구매하시면 건강도 챙기면서 농촌교회에 선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울금은 카페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커큐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항암효과와 더불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 카페를 매일 먹는 인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추천인 -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담임
 기하성 평계주방장

□ **복용요령**
 - 즙, 음료수
 - 엑기스 이용도 가능
 - 환은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한번 복용시 20알)
 - 문의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임신여성
 - 유아, 어린이 금지

□ **재배방법**
 - 순복음목양교회에서 유기농(무농약)으로 일찍이 생명의 땅으로 알려진 나주에서 재배함

♥ 울금가격 ♥ 생울금 1kg 5,000원(작업요함)
 환울금 800g 40,000원(즉시 복용가능) 울금분말 80g 35,000원(가정 필수용품)

주문 및 판매 - 순복음공산목양교회 계좌번호 - 농협 637046-52-072121(예금주: 김정식 목사) 휴대폰 - 010-2918-8291(김정식 목사), 010-7498-0698(사모) 전화 - 061-336-0691